



성가지역아동센터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2017년 8월, 서울주보 사랑의 손길에, 부산에 있는 「성가지역아동센터」가 소개되었습니다. 쪽방이 즐비한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주로 한부모 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천정에서 온수와 급수 파이프가 터져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곰팡이가 잔뜩 핀 벽지를 도배하고 망가진 시설을 수리해야 했지만, 비용 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고 346명의 후원자께서 62,821,983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먼저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제습기를 틀고 환기해도 곰팡내가 났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청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두컴컴했었던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해 아이들이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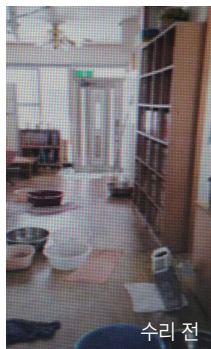
다음으로 방음과 단열을 위한 시공을 했습니다. 공부방이 도롯가에 위치한 데다 알루미늄 샷시 홀문으로 되어 있어 주변 소리가 다 들리고 난방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창문을 이중 창호로 교체하고, 출입문 앞에 중문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출입구쪽 벽을 보수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벽 보수 전



벽 보수 후



수리 전



수리 후

그리고 창문이 없던 화장실에 창문을 내고, 노후화로 난방이 되지 않던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물난리 때 고장났었던 빔프로젝터도 교체했습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해 스프링클러와 가스경보기를 설치하고, 방염 블라인드를 달았습니다. 냉난방기와 에어컨을 구입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음악 수업을 위한 중고 피아노와 우쿨렐레를 구입하고, 도서를 비롯한 교육자재와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려운 형편 탓에 가족여행을 가본 적 없는 가정이 많아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겨울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보일러 교체 전



빔프로젝터 교체



스프링롤러 설치



가스경보기 설치



블라인드, 에어컨 설치



피아노 설치



창호 교체 후



중문 설치 전



중문 설치 후

현재 1천4백만 원의 후원금이 남아있는데, 후원회가 없는 공부방이기에 앞으로 공부방 운영시 발생하게 되는 일에 대비해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둠의 빛처럼 세상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자 가족 모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성가지역아동센터 일동)